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0.20.(화).14:00>

창업 도전! 그 첫발을 내딛다
부산지역 '모두의 창업' 2차 출범식 개최

-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 6,626명, 로컬트랙(동남권) 1,939명 신청, 이중 일반·기술트랙 749명, 로컬트랙(동남권) 386명 선정
- 10월 20일 출범식 시작으로 창업활동 본격 지원… 창업활동 자금·멘토링·AI 솔루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10월 20일(화) 부산지역에서 「202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출범식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 출범식은 호텔농심에서, 로컬트랙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출범식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전국 동시 세리머니와 심사 총평, 선정자 소감 및 포부 발표 등이 진행되며, 이어 트랙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과 단계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운영기관별 보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번 2차 「모두의 창업」에는 부산지역에서 일반·기술트랙 6,626명, 로컬트랙 동남권은 1,939명이 신청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전 의지를 보였다. 이 가운데 일반·기술트랙에서는 부산지역 신청자 749명이 1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됐다. 로컬트랙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1939명이 신청하여 총 386명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9만 3천 명의 신청자 가운데 총 1만 명(일반·기술트랙 8천 명, 로컬트랙 2천 명)이 1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됐으며,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65.3%, 비수도권 선정자는 74.0%를 차지했다. 특히 1차 프로젝트에 이어 다시 도전한 재도전자가 전체 선정자의 40.4%에 달해,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창업 도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에 참여한 운영기관들은 1차에 비해 문제 정의가 구체적이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익모델과 초기 시장진입 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은 고객 검증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역 일반·기술트랙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허브기관을 맡아 선정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부산대학교 등 11개 멘토기관이 참여해 선정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모델 고도화 등 창업 초기 단계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트랙은 글리처파트너스가 부산·울산·경남 지역 운영기관으로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1라운드 진출자들은 본격적인 창업활동에 나선다. 선정자 전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초기 멘토링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도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이 제공된다. 부산지역 재도전 멘토링은 10월 27일(화)에 운영 예정이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청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산지역 도전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분은 물론 다시 도전하는 분들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1-601-5140)
		담당자	사무관	임종복	(051-601-5157)
			주무관	최병식	(051-601-51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